

종교개혁자의 영성

강사 : 이 양 호 교수
(연세대학교)

1. 서언

루이 부예(Louis Bouyer)는 그의 저서 『기독교 영성의 역사』에서 종교 개혁자들의 영성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종교 개혁자들의 생애와 저서를 깊이 고찰해 보면 그들의 사상과 활동은 그들의 깊은 영성에서 유래되었음을 알게 된다. 조던 오만(Jordan Aumann)은 그의 저서 『영성 신학』에서 주로 테레사와 십자가의 요한을 다루고 있지만, 이들과 같은 세기에 종교적 활동을 했던 종교 개혁자들은 이들 못지 않는 깊은 영성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이 시간 루터, 츠빙글리, 뮌처, 칼빈 등 네 종교 개혁자들의 생애와 저서를 관련시키면서 그들이 지닌 영성과 그 영성이 그들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루터의 영성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기 직전의 유럽의 종교적 상황을 보면 영성에 대한 갈망이 고조되고 있었다. 중세 교회는 성직 제도와 성례 제도에 의해 평신도들을 이끌어갔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교황을 정점으로 피라밋형으로 구축된 성직 계층은 그리스도의 공적의 은총을 위임받아 성례라고 하는 은총의 방편을 통해 평신도들에게 분여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중세 말 성직자들을 보면 고위 성직자들은 타락하고 하위 성직자들은 무식하여 평신도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평신도 사이에 중개적 위치에 있던 성직자들에 대한 이와 같은 불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에 대한 갈망을 높이게 하였다.

1505년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는 금욕주의적 노력과 신비주의적 명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룩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수련은 정화-조명-일치에 이르려는 신비주의자들의 노력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신비주의적 노력이 하나님과의 항구적인 평화를 주지 못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후 성서 연구를 통해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음으로써 참된 평화를 가지게 되었다. 루터는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 인간의 명상적 노력으로 천상에 오르려는 신비주의적 상승 운동이나 천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스러운 지성으로 관찰함으로써 지고의 하나님 인식에 이르려는 스콜라 신학적 영광의 상승 운동을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고통받는 죄인을 찾아와 은총으로 죄인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하강 운동을 주장하게 되었다. 루터의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그의 사상과 활동의 근본 원리로 작용했다. 루터는 이 놀라운 성서적 진리를 깨달은 직후 95개 조문을 발표하였는데, 제 51조에서 교황은 베드로 성당을 위해 사람들에게서 돈을 거둬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 성당

을 팔고 교황 자신의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으며, 제 82조에서는 교황이 돈을 받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천당에 보내 줄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사랑으로 영혼들의 청원을 들어주어 연옥을 비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520년에 발표한 『교회의 바벨론 유수』에서는 중세 교회의 성찬론을 예리하게 비판하였는데, 성찬은 사제가 위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래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방편이라고 했다. 1519년에 나온 “두 종류의 의”라는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강한 것은 여러분이 약한 자를 압제하여 더 약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키고 보호함으로써 그들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것은 어리석은 자를 비웃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더 어리석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만큼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것은 불의한 자를 옹호하고 용서하기 위한 것이지 정죄하고 멸시하고 심판하고 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옹호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루터는 죄인을 찾아와 은총으로 감싸 주시어 마침내 인간을 성화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체험에 근거하여 신학 사상을 개진하고 개혁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행위가 아니라 은총을 강조하던 루터의 신학 사상은 종교 개혁 운동이 진전되고 루터의 가르침이 세속 사회 문제에 적용되어야 했을 때 그는 두 왕국론으로 구획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1523년 루터는 『세속 권위: 그 복종의 한계』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과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나누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속 권력이나 법이 필요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으므로 이런 악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칼과 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 국가나 세계를 감히 복음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한 우리에게 이리들, 사자들, 독수리들, 양들을 함께 두고 그들을 서로 자유롭게 섞이게 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마음껏 먹고 상호간에 선과 평화를 도모하라 . . . 고 하는 목자와 같을 것이다.” 하고 루터는 말했다. 마침내 1525년 농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루터는 “약탈하고 살인하는 농민 떼들에 대항하여”라는 글에서 반란은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대화재와 같은 것으로 온 땅을 살인과 피로 채우므로 미친 개를 죽여야 하듯이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찌르시오, 치십시오, 죽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 . .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큰 축복된 죽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다가 죽기 때문입니다” 라고 루터는 농민들을 진압하는 제후들을 격려했다.

3. 츠빙글리의 영성

중세 교권주의에 대한 반동이 르네상스의 인본주의로 나타나면서 기독교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이었던 데 반해 알프스 이북에 도입된 이 운동은 기독교적 세례를 받은 기독교적 인본주의로 나타나게 되었다. 에라스무스는 기독교적 인본주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유럽 전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루터가 역사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에라스무스의 영향은 루터의 영향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에라스무스의 영향은 루터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며, 그

한 실례가 츠빙글리였다. 츠빙글리는 에라스무스의 제자였으나 루터의 복음적 종교의 영향도 받았다.

츠빙글리의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식이었다. “우리 종교의 근거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만이 만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만물을 자유롭게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츠빙글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 운동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다.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존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무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한한 두 실체를 인정한다면 하나는 곧바로 다른 하나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선행도 주권적인 성령의 활동 결과이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헤르쿨레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티데스, 카밀루스 등등도 하나님의 선택에 속한 것으로 보았다.

츠빙글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강조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로 보고 그래서 행위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 비판했다. 이런 점에서 츠빙글리는 루터와 마찬가지로 이신 득의를 강조했으나, 그러나 루터가 체험한 이신 득이에 관한 체험은 공유하지 못했다.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자들에게서 그에 관한 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다. . . . 우리는 다만 그의 말씀을 들어드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생동적이고 강하고 힘이 있으므로 만물은 반드시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위에 있다.”

이와 같이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루터와는 달리 복음과 율법의 구별이나 경전 위의 경전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새로운 율법이었다. 츠빙글리는 이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국가의 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폴 틸리히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이 복음의 법이 국가의 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는 남아 있다. 이것은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프로테스탄티즘이 반 종교 개혁의 로마 교회에 의해 정치적으로 압도되는 것을 면하게 해 주었다”고 하였다.

츠빙글리가 루터와 성찬 논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다. 그의 지고한 신 관념은 “빵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것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리가 성례를 신뢰한다면 성례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루터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오물을 주면서 떡이라고 하더라도 먹겠다고 한 반면,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엄과 주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루터의 성례론에서 신적인 것과 혼동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4. 원처의 영성

루터가 종교 개혁 운동을 진전시켜 나갈 때 루터의 개혁 운동이 미진함을 느끼고

좀 더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 가운데 가장 혁명적인 종교 운동가가 된 처였다.

윈처는 다니엘서에 근거한 그 나라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번째 나라는 로마이고 철과 흙이 섞인 것은 제후와 사제가 함께 다스리는 현재의 나라이다. 교회는 헤게시푸스가 말한 것처럼 사도들의 제자들이 죽고 난 다음 타락하기 시작하여 더 이상 순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뜯돌이 날아와 분쇄할 것이다. 뜯돌은 그리스도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들인 평신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윈처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인 선택된 자들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첫째 단계는 영적인 비참함과 절망의 심연을 인식하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버리는 것이다. 선택된 자들은 불신의 지옥의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 둘째 단계는 구원의 단계로서, 은혜로운 막대기인 개인적 십자가를 받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다윗의 열쇠를 가지며, 그럼으로써 일곱 인의 책인 성서를 펼치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세 단계의 영성 훈련은 중세 신비주의자들의 정화-조명-일치를 변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환상이나 꿈이나 입신 상태의 예언을 통해 성령으로부터 직접적인 교훈을 받는다. “(성령을 가지지 않은) 자는 백 권의 성서를 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있게 말할 수 없다. 이처럼 윈처는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강조했다.

윈처는 처음에는 제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여 악인들을 처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그는 제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악행자들을 더 이상 살려두지 마십시오(신 13:5). 왜냐하면 불경건한 자들은 경건한 자들을 방해할 때 살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살려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 바울이 통치자들의 칼은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윈처는 제후들이 자기의 주장을 받아 주지 않자 농민 운동에 가담하여 지도하기 시작했다. 윈처는 농민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다. “루터는 가난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다면 충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리 대금과 세금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모든 시간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음을 깨닫지 못합니까? 제후들은 고리 대금으로 착취하고 강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의 풀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거짓말 박사는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 . . 그는 칼은 하나님이 통치자들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반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칼의 힘은 전체 공동체에 속합니다. 옛날 좋은 시대에는 통치자가 정의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재판관을 할 때 백성들이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들은 정의를 왜곡시켜 왔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끌어 내려져야 합니다. 하늘의 새들이 그들의 시체를 쪼아 먹으려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설교했다. “여러분, 단 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면 여러분은 십만 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 . . 불경건한 자들이 울부짖을지라도 동정하지 마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명령, 즉 완전히 파멸시키고 전혀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윈처는 악인을 모두 제거하고 ‘성도들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자

기 나름의 비전에 따라 산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결여되어 있었다.

5. 칼빈의 영성

루터가 개혁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자 암스도르프처럼 선행은 구원에 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기까지 했다. 그래서 재세례파에서는 루터를 비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칼빈은 이 때에 나타나서 신앙과 실천, 칭의와 성화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칼빈에 의하면 우리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 둘은 상관관계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게 될 때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인식할 때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한 참된 인식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상실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하고 그 형상을 회복하는 삶,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데, 성령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그리스도의 유익을 받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와 놀라운 교환을 이룩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인간의 아들이 됨으로써 우리를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다. 그가 땅으로 내려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의 가사성을 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의 불사성을 주셨다. . . . 스스로 우리의 불법을 지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의로 입히셨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위대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명상하고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성별되고 바쳐진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부정한 사람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자기 부정의 한 가지 길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갖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정함과 함께 내세에 대해 명상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세에 탐닉하지 않고 영원한 내세를 명상하도록 이 세상에서 환난을 주시기도 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감내해야 함과 동시에 죽음과 최후의 부활을 기대해야 한다. “죽음과 최후의 부활의 날을 기쁘게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진급하지 못한다.”

자기 부정과 내세에 대한 명상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 성전으로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빛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며 죄의 오염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요컨대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성화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은 개인에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 전

반으로 확대되어야 했다. 그는 제네바 시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고 아동들을 교육하고 모든 시민들을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장로들로 하여금 시민들의 삶을 감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제네바의 복지, 실업과 고용, 임금 문제 등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슈티켈베르거(Emanuel Stickleberger)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 국가의 제일 원리가 되었다.” 1556년 녹스는 제네바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사도 시대 이후 지상에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도처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보다 도덕과 신앙이 진지하게 개선된 곳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1558년 의회 선거를 앞두고 칼빈은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좋은 제도, 이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라고 말했다.

6. 결론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고 도취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 영에 따라 살고 가르치고 행동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동되고,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압도되고, 뮌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취되었으며,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각기 하나님의 다른 면을 강조했다지만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바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그 뜻을 실현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영성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